

무자격 대의원 무더기 투표권 부여... 일부 종목단체는 배제

판결문으로 본 광주시체육회 부실행정

광주시체육회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체육회장 보궐 선거에서 자의적인 규정 해석 등으로 선거인수를 정하는 등 부실이 판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전일호)는 지난 19일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과 이강근씨가 광주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회장)당선 무효의 소'에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판단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전 회장 등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다. 선거의 패배를 이루는 선거인수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골자다.

체육회장 보선 선거인수 적용 잘못 자의적 규정 해석으로 선거 영향 불공정 선거 논란에도 개선 안돼 회장 당선 무효 판결 책임론 확산

'승인 대의원 조항' 적용, 300명 이상 선거인수 규정을 어긴 점, 종목단체 대의원수 배정도 하자로 판단됐다. 체육회가 적용한 '선거의 룰'이 법원에 인정하지 않는 하자로 판단된 것이다.

전 회장 등 체육회장 후보 2명은 승인 대의원 조항을 체육회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46명에게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선거관리 위원회가 무자격 승인 대의원 41명(원고가 주장한 인정 대의원 5명은 제외)을 선거인에서 제외했다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체육회는 애초 300명 이상 선거인을 구성했다가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대의원)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거인수를 282명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인 282명 중 2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전갑수가 110표를, 이강근이 32표를, 이상동이 132표를 득표해 당선자와 전갑수의 득표차가 22표에 불과한 점에 비춰볼 때, 315명(종목단체 최소 210명+구 체육회 최소 105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부 종목단체 대의원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자격을 갖춘 대의원 수 부족으로 럭비, 배구, 벨리댄스, 복싱 등 9개 종목 단체에서 기본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13개 종목단체에서 모두 22명의 선거인이 배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체육회의 부실행정이 드러난데다 이미 예견된 사태였기 때문에 체육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체육회는 애초 선거를 치르기 전부터 선거인수 배정을 놓고 참정권 제한, 불공정 선거 논란을 불렀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지난 4월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

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뒤늦게 시체육회와 선관위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뒤늦게 선거인수를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논란이 된 선거규정을 사실상 손질하고 않고 선거를 치렀다.

광주 한 체육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는데 체육회가 이를 간과해 결국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직무대행만 임명했을 뿐, 어떠한 책임과 개선책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역시 '챔스리그 사나이' 호날두 골 맨유 16강행

본선 5경기서 모두 골맛...UCL 181경기서 140골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 안착했다.

맨유는 24일(한국시간) 스페인 비야레알의 에스타디오 데 라 세라미카에서 열린 비야레알(스페인)과 2021-2022시즌 UCL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제이든 산초의 연속 골에 힘입어 2-0으로 이겼다.

승점 10(3승 1무 1패)으로 조 선두를 지킨 맨유는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16강에 진출했다.

비야레알은 조 2위(승점 7·2승 1무 2패)를 지켰다.

맨유는 전반 30분 호날두가 시도한 헤딩 슈트가 상대 골키퍼 헤로니모 룰리의 정면으로 향했다.

답답한 0-0 균형이 이어지자 맨유는 후반 21분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마커스 래시퍼드를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꾀했다.

그리고 후반 33분 마침내 결승골을 만들어 냈다.

비야레알이 골키퍼 룰리로부터 빌드업을 시작하자 맨유의 프레드가 강한 압박으로 공을 가로챘고, 호날두가 이를 받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오른발로 차 넣었다.

이 대회 역대 최다 득점자인 호날두는 이날 자신의 181번째 UCL 경기에서

140골을 터트렸다.

그는 이번 시즌 조별리그 5경기에서 모두 골맛을 봤다.

H조에서는 첼시(잉글랜드)가 유벤투스(이탈리아)를 4-0으로 완파하고 조 1위(승점 12·4승 1패)로 도약, 16강 진출권을 따냈다. 승점이 12로 같은 유벤투스는 조 2위에 자리했다.

전반 25분 트레보 찰로바의 UCL 데뷔 골로 포문을 연 첼시는 후반 10분과 13분 리스 제임스와 켈럼 허드슨-오도이가 한 골씩을 더하면서 승기를 잡았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티모 베르너가 득점에 가세해 4골 차 승리를 완성했다.

E조에서는 이미 16강행을 확정된 바이에른 뮌헨(독일)이 디나모 키예프(우크라이나)를 2-1로 꺾고 조별리그 5연승(승점 15)을 달렸다.

뮌헨의 득점 기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전반 14분 오버헤드 킥으로 선제골을 뽑아내 이번 대회 9호 골을 작성했다.

같은 조의 FC 바르셀로나(스페인)는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 부임 후 치른 첫 조별리그 경기에서 벤페카(포르투갈)와 0-0으로 비겼다.

현재 16강에 진출한 팀은 맨유와 첼시, 리버풀(잉글랜드), 아약스(네덜란드), 뮌헨, 유벤투스다.

/연합뉴스



24일 열린 2021-2022시즌 UCL 조별리그 F조 5차전에서 맨유의 호날두가 경기 중 거세게 향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텔 피에로와 '찰칵' "진정한 레전드 만나 영광"



손흥민(29·토트넘 홋스퍼)과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 알레산드로 텔 피에로(47)가 만났다.

손흥민은 24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토트넘 구단 훈련장에서 텔피에로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진정한 레전드(true legend)를 만나 영광"이라고 썼다.

선수 시절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91경기를 뛰며 27골을 넣은 텔 피에로는 이탈리아 최고의 '판타지스타'(Fantasista)로 평가받은 다재다능한 공격수였다.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에서 19년을 뛰며 주장도 맡았던, 구단의 '전설'이기도 하다.

특히 유벤투스가 승부 조작 혐의로 세리에B(2부)로 강등된 2006-2007시즌에도 팀을 떠나지 않아 팬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텔 피에로는 24일 오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첼시(잉글랜드)와 2021-2022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경기를 치른 유벤투스와 동행해 영국을 방문했다.

유벤투스가 0-4로 완파한 이날 경기에 앞서 텔 피에로는 토트넘 훈련장을 찾았다. 안토니오 콘테(52·이탈리아) 토트넘 신임 감독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영국 언론 이브닝스탠더드는 "토트넘이 훈련장에서 특별한 손님에 맞았다"면서 "전 유벤투스의 스트라이커 텔피에로가 옛 동료 콘테 감독을 만났다"고 전했다.

텔 피에로와 콘테 감독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과 유벤투스에서 함께 뛰면서 1995-1996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한 여러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연합뉴스

'육상 신인류' 하산, 올해의 선수 최종 후보에

세계 육상 역사를 새로 쓰는 시판 하산(28·네덜란드)이 2021년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 여자부 최종 후보에 올랐다.

세계육상연맹은 24일(한국시간) 올해의 선수 여자부 최종 후보 5명을 선정해 공개했다.

하산은 '단거리 최강자' 일레인 톰프슨(자메이카), 400m 허들을 인기 종목으로 끌어올린 시드니 매클로플린(미국), 세단뛰기 세계기록 보유자 울리마르 로하스(베네수엘라), 1500m 도쿄올림

픽 금메달리스트 페이스 키프예곤(케냐)과 함께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2021년 하산은 네덜란드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육상 선수가 됐다.

하산은 8월 7일 일본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육상 여자 10,000m 결선에서 29분55초32로 우승했다. 그는 8월 2일 50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6일 1500m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다.

중거리 1500m와 장거리 5000m, 10,000m에서 동시에 메달(금메달 2개, 동메달 1개)을 획득한 건, 올림픽 육상 역사 초유의 사건이다.

육상에서 중거리 1500m와 장거리 5000m, 10,000m는 '완전히 다른 종목'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하산은 중거리와 장거리에서 모두 최고 기록을 만들었고, '신인류'라는 애칭을 얻었다.

하산은 1993년 1월 에티오피아 아다마에서 태어났지만, '살기 위해서' 2008년 고향을 떠났고 난민 신분으로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정착했다.

그는 "난민 신분으로 네덜란드에 도착했을 때 정말 끔찍했다. 내게는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기분

이었다"며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하산은 "학교에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영을 하고 싶었지만 돈이 든다는 말을 들었고, 배구를 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도 돈이 드는 종목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아픈 기억을 꺼냈다.

난민 출신인 하산에게 열린 종목은 육상이었다. 하산은 "육상은 '무료'였다. 그리고 나는 '육상이 좋다'고 말했다"고 '전설의 시작'을 회상했다.

1988년에 제정된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선수에 네덜란드 선수가 뽑힌 적은 없다. '신인류' 하산은 투표에서도 '첫 기록'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유채이탈자
- 2관 장르만 로맨스
- 3관 유채이탈자, 둔, 디어 에반 핸슨
- 4관 연애 빠진 로맨스
- 5관 엔간토: 마법의 세계
- 6관 유채이탈자
- 9관 이터널스
- 7관 씨네케틀 연애 빠진 로맨스, 강릉
- 8관 씨네케틀 둔, 메이드 인 이태리, 프렌치 디스패치, 시비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 시대, 베놈 2: 렛 데이 비카니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